

요양병원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의 융합적 관련성

차주애¹, 강승주^{2*}

¹,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조선대학교 간호학과, ^{2*}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The Convergent Relationship of Fatigue, CPR-related Stress and Job Satisfactio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Ae-Ju Cha¹, Seung-Ju Kang^{2*}

¹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College, Jeonbuk-G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Gwangju

²Chunnam tech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광주 전남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20명에 대한 자료를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집하여 SPSS 20.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평균은 3.29±.64점, 피로평균은 3.37±.56점, 직무만족도는 3.06±.44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피로는 성별, 인력부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피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로 27.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의 융합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중재방안 모색, 탄력적인 간호인력 운영, 편안한 병원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 주제어 : 요양병원 간호사,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Fatigue and CPR-related stress level and Job satisfac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220 Care Hospital nurses in Gwangju and Chonnam region.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7 to 30, 2014. and analyzed with SPSS 20.0 version program. The mean value for CPR-related stress was 3.29±0.64point, 3.37±0.56point for Fatigue and 3.06±0.44point for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subjects' characteristic, CPR-related stress and fatigu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due to gender and manpower; however, Job satisfaction showed no difference. CPR-related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tigue. CPR-related stress accounted for 27.8% of the cause of fatigu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seeking countermeasure to diminish the stress level for flexible nursing resources management and putting efforts to provide comfortable hospital enviro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CPR-related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 Key Words :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CPR-related stress, Fatigue, Convergence

*교신저자 : 강승주(puoo7808@hanmail.net)

Received May 17, 2016

Revised May 30, 2016

Accepted June 10,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심혈관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3만 명 이상의 심정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심혈관 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급사 환자의 발생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으며[2] 이러한 질환들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치명적인 뇌손상을 초래하거나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3].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2008년 690개소였던 요양병원이 2015년에는 1,372개로 증가하였으며[1]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 중 간호사들은 환자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많은 시간을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4] 심정지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을 발견하는 최초 발견자가 되기 쉽다[5,6]. 이러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회원과 자발순환회복을 향상시킨다[7]. 심폐소생술은 심정지로부터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접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 그 자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심폐소생술 상황 시 보호자와 다른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며 심폐소생술 상황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혼란을 느낀다고 하였다[8]. 또한 간호사는 주말 근무 중이나 밤 근무 동안에 심폐소생술이 일어나는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였고[9],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시행 후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원을 내·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을 때 내·외적 스트레스원으로 인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10].

한편 간호사는 교대근무를 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체 리듬 및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함으로써 수면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피로도 함께 누적된다[11,12,13]. 실제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1], 교대근무나 장시간 근무, 열악한 작업환경, 작업부하 등 직업 관련 특성과 역할갈등, 과도한 업무요구 및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부족 등은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 하였다[14]. 이러한 피로가 누적되면 간호사는 간호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근무에

대한 불만족도 경험하게 되어 의료사고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15].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간호사 개인의 삶과 질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간호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6].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17,18], 간호사와 다른 간호 인력에게 일정한 부분의 간호를 위임하고 적절한 감독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다른 간호인력 모두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9].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업무부담과 인력부족, 의료한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어려운 근무조건 및 보상, 응급 시 대처상황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 소진 현상이 발생하여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과 서비스 및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따라서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하부요인과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요양병원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감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간호업무의 효율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요양병원 근무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 간호사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상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조사 대상자는 G시와 C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대상자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소한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에 필요한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111명이었다. 결측치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대상자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238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2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심폐소생술을 시행·시도한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감각적 증상을 의미하며[21], Cole 등[10]에 의해 개발, Cha[22]가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이를 임상경력 13년 이상의 간호사 10명과 간호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Code Str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도덕적 갈등, 불확실성, 부담감, 억압감의 5개 하위영역을 내재한 총 20개 문항이며, 이들 중 문항 간 상관계수가 낮은 5개의 문항은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괴롭지 않음’ 1점부터 ‘많이 괴로움’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2 피로

휴식이나 수면의 부족, 육체적인 힘을 소비한 후에 호소하게 되는 정상적인 경험을 의미하며[23], Chang[24]이 개발한 MFS(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총 19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님’ 1점부터 ‘매우 그러함’ 5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ng[24]의 연구에서 MFS의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2.3.3 직무만족도

개인이 직무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이나 혹은 좋은

정서 상태[25]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Walker, Churchill and Ford[26], Gibson, Ivancevich and Donnelly[27], Robbins[28]의 연구와 국내 연구로 Lee, Jang & Lee[29], Cho, Lee & Jung[30]의 연구를 Paik[3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 문항으로 직무만족도 하부요인을 업무, 운영, 인사, 인간관계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음’ 1점부터 ‘매우 그러함’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ik[3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4 자료수집 방법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은 2014년 11월 1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해당하는 병원 간호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작성하도록 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거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사용하였고, 피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2.5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작성하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95.5%로 많았고, 연령은

<Table 1> CPR-related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0)

Characteristics	Category	N(%)	CPR-related stress			Fatigue			Job satisfac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10(4.5)	2.87±.97	3.48	.038	3.07±.79	4.90	.234	3.28±.32	1.685	.094
	Female	210(95.5)	3.32±.64			3.39±.55			3.04±.44		
Age	39세이하	123(55.9)	3.30±.66	.27	.992	3.44±.59	.61	.058	3.06±.46	.203	.840
	40세이상	197(44.1)	3.30±.67			3.30±.51			3.05±.40		
Educational level	Diploma	142	3.32±.67	.34	.713	3.35±.56	1.43	.242	3.02±.41	1.702	.185
	Bachelor	66(30.0)	3.27±.68			3.47±.56			3.13±.48		
	Graduate school master's course	12(5.5)	3.18±.56			3.24±.60			3.11±.48		
Marital status	unmarried	70(31.8)	3.31±.69	.05	.890	3.37±.60	1.31	.859	3.07±.47	.387	.699
	married	150(68.2)	3.29±.66			3.38±.55			3.04±.41		
Religion	Christian	78(35.5)	3.28±.62	.66	.620	3.32±.58	.56	.690	3.08±.45	.681	.606
	Catholic	32(14.5)	3.24±.73			3.37±.61			3.08±.31		
	Buddist	14(6.4)	3.54±.58			3.33±.59			3.03±.43		
	None	89(40.5)	3.29±.70			3.42±.54			3.04±.46		
	Others	7(3.2)	3.48±.40			3.59±.34			2.81±.36		
Clinical career	5년미만	62(28.2)	3.34±.81	5.24	.576	3.38±.62	1.41	.978	3.12±.39	.549	.192
	5년이상	158(71.8)	3.28±.60			3.38±.54			3.03±.45		
Working career	3년미만	110(50.0)	3.37±.68	.52	.125	3.35±.60	1.67	.414	3.06±.36	.000	1.000
	3년이상	110(50.0)	3.23±.64			3.41±.53			3.06±.50		
CPR teaching experience	Be	179(81.4)	3.29±.67	.68	.843	3.38±.56	.35	.936	3.06±.44	.013	.990
	None	41(18.6)	3.31±.65			3.37±.59			3.05±.42		
Possess a license	Yes	28(12.7)	3.28±.84	4.33	.891	3.20±.59	.07	.082	3.20±.33	1.546	.124
	No	192(87.3)	3.30±.64			3.40±.56			3.04±.45		
CPR, manpower shortage	Yes	170(77.3)	3.38±.61	3.35	<.001	3.43±.56	.15	.013	3.04±.42	-.749	.455
	No	50(22.7)	3.02±.78			3.20±.54			3.10±.47		

39세 이하가 55.9%, 학력은 전문대졸이 64.5%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68.2%로 많았고, 종교는 없는 사람이 40.5%, 임상경력은 5년 이상이 71.8%를 차지하였다. '최근 2년 이내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경험이 있었다'가 81.4%,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가 87.3%로 많았다. '심폐소생술 시 인력이 부족하다'가 77.3%, '심폐소생술 시 의료장비와 약물비치에 대해 충분하다'의 경우가 79.5%로 많았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는 성별(t=3.48, p=.38)과 심폐소생술 시 인력부족(t=3.3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는 심폐소생술 시 인력부족(t=.15, 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직무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3.29±.64점, 피로정도는 5점 만점에 3.37±.56, 직무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3.06±.4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CPR-related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N=220)

Variables		Mini	Maxi	M±SD
CPR-related stress	Uncertain	1.00	5.00	3.36±.83
	Confusion	1.00	5.00	3.32±.88
	Moral conflicts	1.00	5.00	3.44±.69
	Burdensome	1.00	5.00	3.45±.70
	Oppression	1.00	5.00	2.97±.85
	Average	1.00	5.00	3.29±.64
Fatigue	Average	1.00	5.00	3.37±.56
Job satisfaction	Work	1.40	5.00	3.27±.55
	Manage	1.60	5.00	2.73±.56
	Administration	1.00	5.00	2.81±.57
	Relationship	2.00	5.00	3.48±.57
	Average	1.69	5.00	3.06±.44

3.4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심폐소생술 관

런 스트레스는 피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직무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피로와 직무만족도와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억압감, 부담감, 도덕적 갈등은 피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혼란스러움과 불확실감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피로에 미치는 영향

요양병원 간호사의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로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5가지 하부요인과 직무만족도의 4가지 하부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부담감($\beta=.345, p=.000$), 도덕적 갈등($\beta=.407, p=.000$)이었으며, 27.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직무만족도 하부 요인 중 피로에 미치는 요인은 인사($\beta=-.201, p=.024$)부분이었으며 이는 2.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4>.

<Table 3> Relationship of CPR-related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N=220)

	CPR-related stress				
	Oppr- ession	Burd- enso- me	Moral confl- icts	Conf-u sion	Unce- rr- tain
Fatigue	.198 (.003)	.360 (.000)	.478 (.000)	.112 (.097)	.093 (.168)
Job satisfact- ion	-.080 (.237)	-1.116 (.086)	-.054 (.427)	-.087 (.197)	-.071 (.293)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to fatigue (N=220)

	Fatigue			
	β	t	p	
Oppression	.025	.319	.750	R ² =.069 F=16.057 p=.000
Burdensome	.345	3.689	.000	
Moral conflicts	.407	5.790	.000	
Confusion	-.205	-1.965	.051	
Uncertain	-.136	-1.445	.150	
Work	.029	-.331	.741	R ² =.029 F=1.606 p=.174
Manage	.082	.929	.354	
Administration	-.201	-2.272	.024	
Relationship	.113	1.379	.169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감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간호업무의 효율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29±.6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a[22]의 연구 결과에서 3.47±.75점으로 보고한 결과와 Cole[10]등의 연구에서 보고한 3.75±.59점의 결과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 간호사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 표집차이에서 오는 특성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병원에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전원을 권유받아 오거나 입원 시 DNR(Do not resuscitation)을 조건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도 스트레스가 낮은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인력부족이었다. Lee[20]의 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의 과중과 부담감, 응급상황 대처 등 간호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간호사고 부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요양병원 인적관리 전략으로 구성원 간의 지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 확보와 의사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 체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관리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피로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7±.56점(총점 64.54±11.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32]의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느끼는 피로정도 4점 만점에 평균 2.2점(5점 만점에 2.75점)과 비교하여 피로정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나, Kim[33]의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근무부서별 피로도를 조사한 결과 피로 총점이 83.7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피로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표집대상자와 측정도구 선정 등에 대한 연구 설계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급성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일상생활활동 관련 보조업무를 많이 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긴장 상태에서 일을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정도는 인력부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yeon[34]의 연구에 의하면 교대근무 시 신체적인 피로도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하였으며, Yang[35]은 밤번 근무환경 자체가 피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근무 중 특히 밤 근무를 하는 경우 피로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과다한 간호업무 뿐만 아니라 잦은 밤 근무로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여 피로감을 더 느낄 것으로 사료된다[36]. 그러므로 피로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 낮추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6±.44점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Lee[20]의 연구에서는 평균 3.12점, Lee[37]의 연구에서도 평균 3.27±.47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르고 연구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추후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재분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검증 결과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피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62, p=.000$)를 보였으며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피로와 직무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근율, 소진경험, 이직의향, 이직률을 높이고, 간호업무 수행 및 동기부여를 낮게 하여 궁극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38,39,40,41] Lee[32]와 Han, Ahn[42]의 연구에서는 간호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를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와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e[20]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를 수행 할 때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에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Kim[43]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어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직종은 다르지만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직무만족도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규명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도록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피로에 미치는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부담감($\beta=.345, p=.000$), 도덕적 갈등($\beta=.407, p=.000$)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건강관련 행위 특성, 인구 사회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44], 요양병원 환자들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 정신적 혼미,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간호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45] 이로 인해 피로가 더 많이 누적되며[46], 심폐소생술 후 환자의 생사의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도덕적 갈등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Lee와 Shon[47]은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관심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Bang, Lee, Cheong[48]은 간호사들에게 주기적인 피로예방 프로그램의 활용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무만족도에서는 인사($\beta=-.201, p=.024$)부분이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은 2.9%로 매우 적었다. 이는 요양병원에서의 인사는 병동업무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피로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대근무 체제와 간호 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요양병원 특성상 임상경력이 많은 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합당한 보상제도와 편안한 병원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에 소재한 일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편의추출의 편중이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와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와 피로는 순 상관관계가 있으며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부담감과 도덕적 갈등이, 직무만족도의 하부요인 중에는 인사부분이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융합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의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대상자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확대·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심폐소생술 관련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014.
- [2] S. O. Hwang., G. S. Im,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Gunja publisher, Seoul, 2006.
- [3] Y. H. Oh., B. J. Kim, "The Effect of CPR Training for Non-Healthcare Provider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11 No. 2. pp. 278-286, 2005.
- [4] Y. J. Kim, "The Influence of General Hospital Nurse's Emotional labor, Intelligence on Job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9, pp. 245-253, 2014.
- [5] C. W. Park., T. G. Ok., J. H. Cho., S. W. Cheon., S. Y. Lee., S. E. Kim., K. H. Chol., J. H. Bae., J. Y. Seo., H. C. Ahn., M. E. Ahn., B. R. Cho., Y. H. Kim, "A study of Effectiveness of CPR Training to the Personnels of Nursing Department in the Hospital". JKSEM, Vol. 161 No. 4. pp. 474-480, 2005.
- [6] Marzoog H., & Lyneham, J., "Cardiopulmonary Resuscitatem Knowledge among Nurses Working in Bahrai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5, pp. 294-302, 2009.
- [7] S. Y. Yoon, "Factors affecting recovery of spontaneous circulation and survival discharge after CPR in ICU, wards and ER",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4.
- [8] Pups, G. M., Weyker, J.D., & Rodgers, B.L. "Nurses' reactions to participatation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n the Nursing Unit", Clinical nursing research, 6(1), pp. 59-70, 1997.
- [9] Peberdy, M. A., Joseph, P., ornato, G., Luke Larkin, R., Scott Braithwaite, T., Michael Kashner., et al. "Survival from In-Hospital Cardiac Arrest is Worsd at Night and on Weekends," JAMA. 299(7), pp. 785-792, 2008.
- [10] Cole, F. L., Slocumb, E. M., & Mastey, M. J. "A Measure of Critical Care Nurse's Post-Code Stress. Blackwell Science Lt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3), pp. 291-288, 2001.
- [11] H. J. Kho., M. Y. Kim., Y. S. Kwon., C. N. Kim., K. M. Park., J. S. Park., Y. S. Park., C. J. Park., Y. H. Shin., K. H. Lee, "The Fatigue Experience of Shift Wo가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8(1), pp. 103-118, 2004.
- [12] G. J. Kwon, "A study on shift work nurses' sleeping pattern according to their fatigue level and woking type", Graduate shool of Ewha Woman University, Seoul, 2005.
- [13] Y. N.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ift Work, and Sleep Problems and Fatigue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Gr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2005.
- [14] S. P. Park, D. B., Lee, I. S. Kwon., Y. C. Cho.,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Job stres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Self Perceived Fatigue in white collar Male Worker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KSOEM, 22(1), pp. 48-57, 2010.
- [15] Barker, L. M, "Measuring and modeling the effects of fatigue on performance: specific application to the nursing profess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2009.
- [16] Y. H. Park, "Influences of Environmental Factors

- of Care Providers in Medical and Welfare Servic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n their Job Stress”, Graduate School of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Korea, 2010.
- [17] S. K, W, “Comparison between Nursing Home Nurses and Hospital Nurses for Emotional Labor and Job Satisfaction”, *J Korean Gerontol Nurs* Vol. 14 No.1, pp. 40-49, April, 2012.
- [18] Walker. M. J, “Effects of the medication nursing assistant role on nuse job satisfaction and stress in long-term care”,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32(4), pp. 296-300. 2008.
- [19] Celik, S. & Hisar. F, “The influence of the professionalism behaviour of nurses working in health institutions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8(2), 180-187, 2012.
- [20] Y. H. Lee, “A study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2010.
- [21] Laws, T. “Examining critical care nurses’ critical incident stress after in hospital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ustralian critical care”, 14(2), pp. 76-81, 2001.
- [22] D. H. Cha “Nurses’ Competence in CPR and Their CPR-related stres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14.
- [23] David A., Pelosi., MacDonald., Stephens D., Ledger D., Rathbone R., & Mann Anthony, “Tired, Weak or in Need of Rest : a Profile of Fatigue among General Practice Attenders,” *British Medical Journal*, 301, pp. 1199-1202. 1990.
- [24] J. S. Jin, Health Statistics Collection and standardization of measurement, GYECHUK MUNWHASA, Seoul, 2000.
- [25] Locke, E.,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Handbook of industrai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 [26] Walker, Orville, C., Gilbert A. Churchill, Jr. and Neil. M. Ford(1997).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Industrial Selling; Present Knowledge and Needed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May), pp. 156-168.
- [27] Gibson, James L., John M. Ivancevich and James H. Donnelly Jr. *Organization; Behavior Structure Processes*, Plano Texas, Business Publications, Inc. 1998.
- [28] Robbins, Stephen P. *Organization Behavior*, Prentice Hall, 1998.
- [29] H. S. Lee., K. L. J., Y.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Mediators in the Hotel Industry” *KASBA*, 28(1), pp. 75-102, 1999.
- [30] K. S. Cho., H. J. Lee., S. H. Chung,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for the Employees in National”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4(1), pp. 190-207, 1999.
- [31] S. K. Paik, “The Internal Marketing Strategy for The performance of Medical Servi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 Kyung Kwan University, Seoul, 2000.
- [32] K. M. Lee, “A study on Relationship of Work Stress,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of Emergency Room nurses”,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2003.
- [33] H. H. Kim, “Job Stress, Fatigue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Symptoms of Hospital Nurs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Nursing Education Korea University, 2011.
- [34] Y. S. Byeon, “The Effects of 2 or 3 shift Rotation on the Fatigue and Sleep”, *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7, No2, December, pp 5- 15. 2005.
- [35] J. S. Yang, “Fatigue of Night Shift Nurses Seen in Circadian Types at Intensive Care Uni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9, No.2, September, 2000.
- [36] N. S. Hah, “Comparative study about the Nurse’s stress in a General Ward, ER”, *The New medical journal*, 41(3), 91-101, 1998.
- [37] M. W. Lee, “The Influence of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geriatric hospital”,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Hospital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eoul, 2015.

[38] Nichoson L. G, “Stress Management in Nusing”, Nusing Management, 21(4), 53-55, 1990

[39] Gustafson D., Dushene P. & Baker L, “Stress and Time Management”, Addison-Wesley, 200-211, 1992.

[40] Schaefer J. A. & Moos R. H, “Effects of Work Stressors and Work Climate on Long-Term care staff’s Job Morale and Functioning”,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9, 63-73, 1996.

[41] S. M. Lee,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Factors on Work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5 No. 4, 1995.

[42] J. R. Han., S. H. Ahn, “The Effects of Nurses’ Satisfaction on Hospital Performance -Focused on the Patient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419-430, 2015.

[43] H. Y.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operating room nurse’s nursing task performanc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10.

[44] E. S. Shin,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Fatigue Symptoms among Blue Collar Workers in Manufacturing Pla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57-68, 2016.

[45] Y. J. Suh,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 consciousness and job stress of caregivers employed at silver hospitals and their intention to leave”, Chosun University, Master’s thesis, Gwang-Ju, Korea, 2011.

[46] E. H. Hwang, “Influence of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Fatigue on Job stress of Geriatric Hospit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8 pp. 5413-5421, 2015.

[47] E. Y. Lee., K. H. Shon,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with job stress in nursing”,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87-95, 2015.

[48] B. M. Bang., S. Y. Lee., J. O. Cheong, “Empirical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05-213, 2015.

저자소개

차 주 애(Ju-Ae Cha)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5년 8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3년 7월 ~ 2015년 3월 : 한려대학교 조교수
- 2015년 4월 ~ 현재 : 전북과학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학, 비관적 사고와 간호과정

강 승 주(Seung-Ju Kang) [정회원]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6년 2월 :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중환자간호학, 시뮬레이션, 재활간호학